

김용성의 『이민』을 통해 본 라틴아메리카 한인 이민사의 그림자

박정준

김용성의 장편소설 『이민』(1998)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걸작이다. 장장 세 권으로 이루어진 긴 소설은, 라틴아메리카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재를 소상하게 알려준다. 이 작품은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부정적인 부분을 독자와 더불어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한반도 밖으로 탈주한 주체들이 끊임없이 네이션(nation)에 고착되면서, 내부 이방인(outsider within)으로서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형국



소설가 김용성(1940년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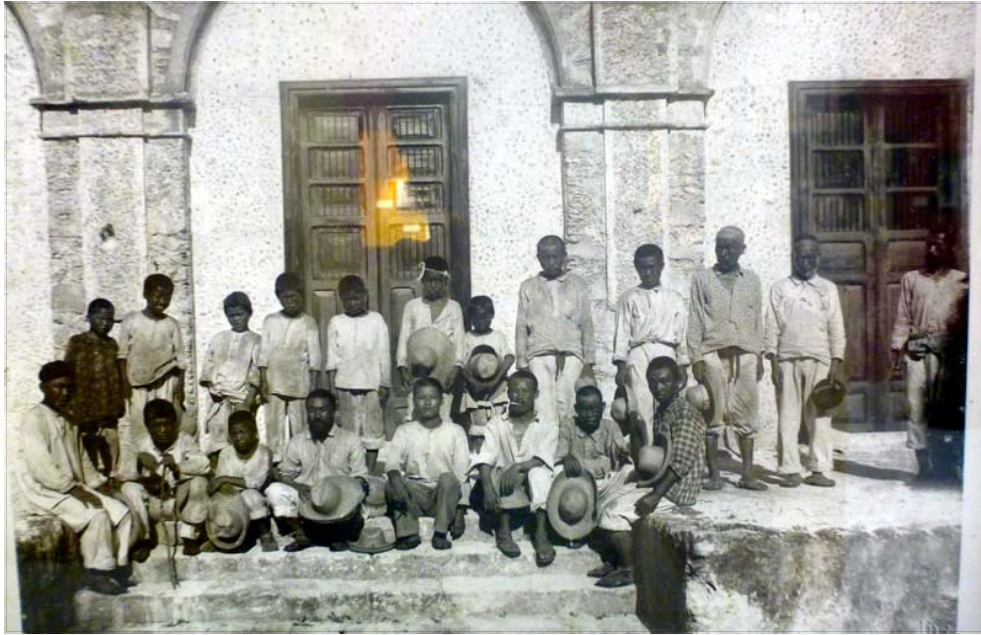
을 비교적 초국가적 지평으로 서술한다. 급팽창 중인 지구화로 인해 온갖 사연을 안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디아스포라 주제의 급부상 속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문학에서도 황석영을 비롯해서 오수연, 강영숙 과 같은 작가는, 이주와 난민, 유배와 같은 전 지구적 현상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소설로 전달한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세바스티앙 살가두(Sebastião Salgado)의 사진집 『이주: 이동 중인 인류』는 세계화의 후미진 이면을 공개하며, 전 인구의 약 3%가 정치적 질곡과 기아,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월경을 거듭하는 강제적 이주를 보여준다. 김용성의 『이민』은 한인 이주사가 디아스포라의 일환으로 관심을 받는 경향에서 대문자 역사가 간과한 역사를 만나도록 추동한다.

파란만장한 라틴아메리카 한인 이주사

한국인이 떠나면 라틴아메리카까지 이민을 가게 된 동기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민에 우호적이었다. 낱일이 늘어가는 인구문제로 몸살을 앓던 중, 잉여 인구를 자연스럽게 속아내는 인구 억제책으로 기능했다. 이밖에 세계로 진출한 한인을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이민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외화를 확보할 수도 있었으며, 실업문제를 푸는 묘안으로 주목받았다. 군사정권 하 암울한 사회정치상과 빈곤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기회의 땅으로 비친 라틴아메리카에서, 과거 파라다이스를 좇아서 라틴아메리카로 향했던 유럽인처럼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려 했다. 눈여겨볼 점은 초창기 라틴아메리카 이민을 관장했던 부서가 노동국이었던 점이다. 당시 노동국에서 해외이민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 특히 혼혈아를 초국가적 입양 보내는 일도 관할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군사정부가 인구 통제(장기적 자산으로서의 교포와 ‘축출되어야 할 더러운 피’)에 민감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인의 라틴아메리카 이민은 일제 강점기에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다. 광활한 영토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데 이민자를 활용하고 싶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바람과, 농업이민을 통해 손쉽게 이민대열에 합류하고 싶었던 한국인은 합치점을 찾게 된다. 초창기 이민자는 대개 고학력 중산층 기독교 신자로 채워졌으며 고위군인 출신이 유달리 많았다. 이밖에 남한에서 소외감을 호소하던 이북 출신도 이민자 대열에 합류했다.



1905년 멕시코에 도착한 한인 노동자들

그러나 농사 경험이 일천한 한인이 사회간접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황무지에서 농민으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들 중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업을 포기하고 이민국의 수도로 입성해서 소상공인으로 사는 것을 택했다. 수도에 거주하면 자녀의 취학도 수월했으며, 돈벌이도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한인은 제조업이나 IT 분야 등에서 외연을 넓히고 있으나, 상당수가 의류업에 종사하는 유형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계 이민자는 브라질에서부터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파라과이, 칠레 등지에 비교적 널리 분포하고 있다.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가 대형 경기침체로 삶이 곤궁해지면서 이민자가 급감했지만,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한인의 이민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중요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탈주 욕구로 채워진 라틴아메리카 한인 이민사

한인의 이민은 도피적이었다고 흔히 말한다. 경제적 성공이나 자식교육처럼 이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욕망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지만, 한반도에 더 이상 정주하기가 곤란하여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서, 이들을 내쫓긴 디아스포라의 주체로 표상하는 시각도 있다. 명시적으로 군부독재 학정에 유린당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암울하고 부조리한 사회상을 벗어나려는 절박함으로 무작정 한국을 떠나 이민국에서 처절하게 고생했던 삶도 디아스포라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소위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 곳곳에 이산된 한국계 이민자를 통해 번영의 영예를 이룩하겠다는 대의명분이 왁자지껄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계 이민자의 중산층 진입, 명문학교 진학, 현지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 등의 결과가 강조되곤 한다. 그러나 소설 속 한인의 운명은 일반화하기 힘들 만큼 다양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어렵게’ 살았던 한인은, 1980년대 남미에 드리워진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며 확연하게 패자와 승자가 엇갈리게 된다.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호재를 보지 못한 이민자는 이민국 내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조국으로부터 동시에 팔시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재인종화로 인해 이민자가 경쟁 대열에서 밀려날 때, 고향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 동시에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는다.

이 소설에 나오는 다채로운 인물들은 파라과이에서 파란만장한 이민 생활을 시작한다. 필로미나 에세드(Philomena Essed)에 따르면, 다민족 사회에서 동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경향이 다분할수록, 사람들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보편적 유사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우세한다고 한다. 예컨대, 작금의 네덜란드에서는 무슬림이 얼마나 백인 기독교도와 첨예하게 다른지를 강조하는 담론이 상시적으로 미디어에서 강조된다. 이러한 보도가 잇따르면, 인종과 종교, 출신국가가 다른 사람들끼리 관용하며 더

붙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이 작품에서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은 합치점을 찾기 어려운 상이한 집단으로 파악된다.

거의 모든 것이 한국과 다른 파라과이에서 체계적인 양국의 이민정책 없이 첫발을 내디딘 이민생활은 강인한 정신과 인내심, 그리고 개척정신을 슬하에 요한다. 작품 속 한인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한반도를 벗어나서 머나먼 남미에 당도하지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한인 공동체와 독특한 관계를 고수한다는 공통점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라틴아메리카인은 선주민이나 볼리비아 노동자, 일본계 브라질인 등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만다. 대하소설에 육박하는 장황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현지인의 삶에 대한 천착이 부족한 점은, 일부 한인이 ‘그들만의 천국’에서 개인적 행복과 자산축적에 집중했다는 이면을 알리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이민 이후 겪는 부모와 자식갈등

지구화가 지금처럼 후끈 달아오르기 전에도, 인간들은 갖가지 필요에 따라서 민첩하게 이동을 수행했다. 이민자 연구에서 1세대 이민자는 흔히 ‘건강한 이민자’라고 부른다. 병약하고 소극적이며 우둔한 이들은 이민처럼 극단적인 환경적 변화를 쉽사리 감당하지 못하기에 출신 국가에 머물러 한다. 반면, 유난히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도전의욕이 다분한 이들은 이민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실현하는 데 대범하다.

문제는 이민 1세대보다 1.5세대에게 집중된다. 이들은 부모세대와 달리 확고부동한 종족성을 내세울 수 없기에 정체성 혼란에 직면한다. 자신들의 국적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친숙하고 편안한 종족성을 집안 안팎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민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 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고수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한국적인 것을 강요하면



1969년 상파울루의 한인 옷가게(좌)와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우)

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성취지향적인 꿈을 자식에게 투사하며, 시종일관 다른 한인과 비교하려 드는 부모를 자녀 세대는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이민자 중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가 이민과 동시에 정체되는 경우도 있다. 가부장적 문화를 사수하려는 부모 세대는 결국 자식에게 외면을 받고, 고독한 노년을 보내기도 한다.

이 소설에서는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부모 세대와 갈등을 벌이는 이민 1.5세대의 문제가 노정된다.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의 포클랜드전쟁이 한창일 때, 부모들은 한국전쟁의 상흔이 되풀이될 것을 두려워하며 감탄고토 식으로 시국과 거리를 두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반면, 아르헨티나 시민으로서 징집영장을 받은 자식은 또래와 더불어 참전하려 한다. 그러나 부모는 아르헨티나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전쟁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을 이유가 하등 없다고 다그친다. 아들의 참전을 막는 부모의 전략이 성공해서, ‘권리는 있되 의무는 등한시하는’ 아르헨티나 시민으로 남아 동화에 실패하고 만다.

한국 이민자만의 성(城)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설 전면에서 비한국계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한국인이 아닌 주체들이 사건을 주도하는 것은 없다시피 하다. 한국 출신 이민자의 집단 심성을 전형적으로 묘사한 성취는 이루었지만, 평균적인 한인의 시각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한계를 동시에 갖는다.

한국인은 인종차별주의 측면에서 서구 출신의 백인과 사뭇 다른 종류의 인종차별주의를 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극동 아시아인을 제외한 유색인종을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로부터 세뇌 받은 시각으로 대한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비판과 조소, 인종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 ‘인종 색맹’ 등 각종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는 풍조(political correctness)로 인해 서구 출신의 백인은 고전적 인종차별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명하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인은 유색인종을 타자화하고 멸시하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유색인종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서구에서 일본인을 ‘명예 백인’이라는 희한한 부류로 취급하듯이, 한국인은 자신의 출신 배경(‘어엿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으로 인해 특별대우를 받을 만하다는 환상을 품으며 백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 한인이 부담스러운 집값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복한 백인이 밀집한 거주 지역에 살기를 염원하거나, 자신의 소규모 상점을 방문하는 추레한 원주민이나 흑인 고객을 폄하하는 시각은 부작용을 낳는다. 몇몇 한인은 인종에 기인한 직접적인 차별과 배제라는 고전적인 인종차별에 함몰되어 있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원주민은 이름 없이 파편적으로 소개된다. 이마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려지며, 원주민의 삶에 진중하게 머무는 법이 없다. 일면 짐승에 가깝거나 근대적인 수단으로 소통하기 힘든 주변적이고 열등한 집단으로 그려진다. 소설에서는 비단 원주민만 타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피’가 한 방울이라고 섞이지 않은 자들은 모조리 외면



2010 남아공 월드컵 한국 대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관람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 어린이들

받는다. 40년 가까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거주했던 한인으로서 믿기지 않을 만큼 한인과 애증 어린 관계에 고립돼서 협소하게 살아간다. 조금이라도 비중 있게 그려지는 비한국인은 ‘방종하게 살다가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 해서 부모를 속 썩히는 1.5세대’의 아랍인 배우자뿐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몇 십 년째 남미에서 돈을 벌며 생존을 영위하면서도, 뿌리 깊게 남아메리카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한다. 남미의 관료는 몇 푼의 뇌물로 매수할 수 있는 부패집단으로 일괄되며, 한인이 남미 사람들과부터 귀감을 받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달 동안의 짧은 취재를 통해 완성된 창작과정의 불가피한 한계일 수도 있지만,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열세에 놓인 국가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속단하는 한국인의 일그러진 태도와 흡사해 보여서 문제가 있다.

지역별 거주자격별	재 외 국 민				시민권자 (외국국적)	총 계
	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 학 생		
계	78,962	53,297	24,898	767	34,018	112,980
브 라 질 전 역	25,819	23,794	1,876	149	24,954	50,773
주 브 라 질(대)	766	334	429	3	119	885
주 상 파 울 루(총)	25,053	23,460	1,447	146	24,835	49,888
아 르 헨 티 나	14,934	14,340	590	4	7,420	22,354
멕시코	10,924	1,607	8,929	388	876	11,800
파 라 과 이	4,706	4,641	49	16	499	5,205
과 테 말 라	12,918	3,101	9,765	52	0	12,918
칠 레	2,462	2,336	119	7	48	2,510
페 루	1,281	342	909	30	24	1,305
에 과 도 르	1,297	1,115	178	4	3	1,300
볼 리 비 아	627	577	5	45	44	671

2012. 12 기준 라틴아메리카 재외동포 현황(자료: 외교통상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명예 백인’

한국인의 라틴아메리카 이민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실은, 한인이 불법체류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점이다. 한인 중 이민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기술이나 고액의 이민정착자금이 없어도 이민을 허용하던 파라과이나 볼리비아에 일단 도착한 뒤, 기회를 엿보아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지로 월경하는 사례가 상당했다고 추산된다. 일례로 브라질에서 한인사회가 난맥상을 보이며 갈등을 거듭했던 주된 원인도, 이전에 정착한 합법적 이민자와 이후 정착한 불법 체류자 사이의 사분오열 탓이기도 하다.

한국인에게 브라질 이민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 비쳤다. ‘근면 성실한 노동과 자녀 학구열, 교회 활동에 열정적’이라는 한인의 공통점이 브라질에서도 두드러졌다. 한인의 브라질 이민사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군인과 중산층이 주종을 이루었던 공식이민 시기(1963~1971)를 지나자마자 불법 이민(1972~1980)이 성행했다. 한때 브라질에 거주하던 한인의 1/4이 불법 체류자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상파울루의 한인 일간지

그뿐만 아니라, 애초에 농업 이민을 꾸리기로 약속하고 브라질에 입국한 한인 중 상당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사를 접고 도시로 진출해서 소규모 상점이나 영세공장을 운영한 것 역시 브라질 정부로서는 약속 불이행으로 파악될 법했다. 1960년대 한국이민자의 농업이민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라고 판명되자, 브라질 정부는 한국인의 이민 승인을 기어코 1969년에 중단했다. 농업이민 사업에 착수했던 문화사절단 등의 한인기관은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이민 중단 방침 이후에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이민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국경을 넘는 데 필사적이었던 것을 예증한다.

소설에서 제법 거창한 규모의 의류공장을 운영하는 한인이 빈국 출신 불법 체류자를 수탈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볼리비아 노동자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브라질 노동자의 절반에 그치는 임금을 지불하는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서 파업을 벌이려 한다. 한국인 경영자에게 볼리비아 노동자는 돈벌이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릴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소설 속 한인은 초창기 한인 이민자의 간난신고를 볼리비

아인에게서 추호도 읽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인 공장운영자 역시 볼리비아 노동자와 기실 동병상련 처지이다. 한인 역시 불법 체류자로 뇌물을 주고 공장을 운영하는 치부를 숨기고 있다. 한인이 브라질 등지에서 볼리비아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번다는 주장은 종종 회자되고 있다. 시몬 뷔츨러(Simone Buechler)에 따르면, 일본이 자국민의 브라질 이민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별다른 지원책이 부재한 것과 진배없었다. 당시 이민을 촉진하던 분위기에서 독일이나 북미 이민은 여러 장벽으로 인해 어려웠다. 이때 파라과이를 비롯한 몇몇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최종 도착지 미국에 도달하기 위한 ‘아메리카 드림’의 시작점으로 기능했다.

한국인은 파라과이 등지에서 불과 몇 달을 지낸 다음 곧바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지에 잠입했다. 이후 한국 이민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소규모 영세 봉제공장을 브라질 등지에서 운영했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도 일하는 등 라틴아메리카 사람과 사뭇 다르게 부지런한 근성을 발휘함으로써, 오래도록 유대인과 아랍계 이민자이 석권하던 분야를 순식간에 장악하게 된다. 1998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당시 브라질에서 팔리던 옷 중 1/3은 한인이 만들었을 정도이며, 의류공장 운영자 중 90% 이상이 한인이었다. 한인은 패션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유행하는 신상품을 신속하게 베껴서 저가로 시장에 쏟아내듯 내놓는 데 달인이었다.

그러나 중저가 정책으로 브라질 의류 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부작용을 낳았다. 일부 한인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체류 신분의 볼리비아 노동자를 고용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볼리비아 노동자는 여권을 빼앗기기도 했고, 하루 종일 중노동에 혹사당한 나머지 산업재해를 당해서 노동권을 억압당했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의류산업은 중국 등지로부터 밀려오는 저렴한 의류와 새로운 이민자의 진입으로 경쟁적 구도가 더욱 강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



2009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석맞이 한국 문화의 날 행사

라틴아메리카인의 한국인 표상

라틴아메리카 이민사에서 한국인의 동화와 적응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한복판에 서있다. 한국인은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성실히 일하며, 자식들을 희생적으로 양육함으로써 명문대학에 보내는 데 필사적이며, 무슬림 못지않게 한국문화를 사수하는 파수꾼이라는 평을 듣곤 한다. 한편, 한국인은 ‘돈을 버는 데만 골몰해서 현지에 동화되는 데 소극적일뿐더러, 라틴아메리카 이민생활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는 면이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여러 차례 논의된다. 작품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착지를 바꾼다. 파라과이를 떠나서 아르헨티나로, 또 다시 브라질이나 멕시코로 이동함으로써 초국가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이민국가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아로새기며 종족성을 탈피하려는 의사는 빈약하다. 굼직굼직한 정치적 파란에도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

이지 않으며, 내로라하는 축제에도 참가하지 않고, 극심한 양극화를 앓고 있는 사회의 아픔도 보지 않는다. 일면 계토화된 한인공동체에서 한인끼리 연애하고 이전투구하며, 경쟁하고 시기하고, 도움을 주고 사기를 치기도 한다. 소설 속 한인이 왜 현지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채 시종일관 이방인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제기될 만하다.

이 소설은 작가가 끈덕지게 라틴아메리카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비교적 충실하게 담아냈다. 하지만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에서, 타자에 대한 진중한 재현이 누락됨으로써 라틴아메리카가 손쉽게 한국의 대체지로 둔갑하고 마는 결과를 야기했다. 소설 속 인물들이 이민사회 속 동화나 기여, 책임에는 하등 무관심한 채, 지극히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데 천착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적 이주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소설 속 한인주체들이 경계를 허물며 혼종성을 심화하기보다는 상상된 공동체를 지키려는 신화적 환상의 으깨짐을 보여주면서 진부한 애향가로 귀결되지 않는 미덕을 남긴다.

박정준 - 서울대학교 비교문학 박사과정 재학